

광주생산 기아 '스포티지' 후속모델 베일 벗었다

다이나믹 속도감·풍부한 볼륨감 강조

기아자동차는 내달 출시될 스포티지(프로젝트명 Q1) 후속모델의 렌더링 이미지를 17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기아차는 광주공장에서 생산되는 스포티지 후속모델의 디자인 키워드를 '스포티&파워풀 에너지'로 잡고 혁신적인 조형과 풍부한 볼륨감을 바탕으로 기존 모델보다 한층 강인하고 진보적인 SUV 스타일을 구현했다.

스포티지 후속모델의 전면부는 스포티한 감성을 부각하는 차별화된 유선형 후드라인과 와이프한 라디에이터 그릴로 대담하고 강



기아차 스포티지 후속 모델 외장.

인한 이미지를 구현했다. 측면부는 다이나믹 부한 볼륨감과 함께 힘있는 옆면을 강조했다. 한 속도감이 느껴지는 형태를 유지하면서 풍 후면부는 전체적으로 넓고 안정적인 스타일

을 추구하면서 세련된 마무리를 통해 이미지를 고급스럽게 향상시켰다.

스포티지 후속모델의 내장은 운전석을 안정적으로 감싸는 배치와 운전자를 향해 각도를 기울인 센터페시아로 운전자의 조작편의성을 증대했다.

스포티지는 전 세계 최초로 탄생한 도심형 SUV로 1993년 첫선을 보인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22년간 총 350만대 이상 판매된 기아차의 글로벌 최다 판매 모델이다.

스포티지 후속 모델은 2010년 출시한 3세대 모델인 스포티지R 이후 5년 만에 선보이는 4세대 풀체인지 모델로, 기아차만의 새로운 SUV 디자인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판매 급감에 차량 손실 현대기아차 '중국 쇼크'

글로벌 경기 불황에도 선방하던 현대기아차가 올해 중국 시장에서 극심한 판매 부진에다 탕진항 폭발 사고로 대규모 차량 손실까지 입으면서 '중국 쇼크'에 시달리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올 하반기 중 중국 시장에 신차를 대거 투입하고 공세적 가격 인하로 극적인 반전을 노릴 계획이다.

17일 현지 언론 및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중국 자동차 시장 판매는 베이징현대(현대차)와 동평위에다가(기아차)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2%와 33% 급감한 것으로 추산됐다. 상하이 폭스바겐은 24%, 상하이 GM은 20%가 줄었다. 중국은 현대기아차 해외 판매의 4분의 1 가량을 차지하는 최대 시장이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현대기아차의 중국시장 점유율은 7.3%로 전달의 9.1%보다 1.8% 포인트나 급감했다. 베이징현대의 점유율은 4.5%, 동평위에다가는 2.8%를 각각 기록했다.

현대기아차의 중국시장 점유율은 지난해에도 매달 10% 선을 꾸준히 유지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1월 8.8%에서 2월 9.9%, 3월 10.1%로 꾸준히 상승한 뒤 4월에도 10.0%를 나타냈다. 그러나 5월부터 가파른 하락 곡선을 그리면서 연간 점유율 10% 달성도 힘들어진 상황이다. 올 상반기까지 누적 점유율은 9.2%다.

현대기아차의 이같은 실적 부진은 중국 자동차 시장이 소비 심리 위축으로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합자회사들이 판매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치열한 판촉 경쟁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탕진항 대형 폭발사고의 최대 피해자도 현대기아차다. 사고 당시 아적장에 있던 현대기아차 4100여대가 전소하면서 최대 1600억원에 대한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르노 1500대, 폭스바겐 2700여대 등과 비교해도 피해 규모가 크다. 더구나 현대기아차의 경우 베이징 현대에서 생산하지 않는 제네시스, 에쿠스 등 고급 차종들이 아적장에 있어 피해액이 커졌다. 물론 보험으로 전액 보상되지만 워낙 많은 차량이 한꺼번에 손실돼 중국 내 판매에 일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으로 보상되기는 하겠지만 고급 차들인데다 4000대가 넘는 대규모 차량이라 판매 및 인도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중고차매매 전문가 산정가격 제공해야"

국토부, 법개정안 입법 예고

중고차 매매업자는 소비자가 원하면 정부가 인정한 전문가가 산정한 가격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중고차를 직접 운전해보고 싶을 수 있도록 4km 이내 시운전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15일까지 예고하며 이르면 11월에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1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중고차 매매업자는 매수자가 원하는 자동차가격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때 가격 산정은 정부가 정한 교육을 이수한 차량기술사나 국토부로부터 공인받은 자동차 진단평가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만 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중고차 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전문가는 현재 2000여명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품질 높이고 가격은 동결 차업계 '착한가격' 통했다

국내 자동차 업계가 최근 신차나 상품성 개선모델을 내놓으면서 가격을 동결하거나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특색을 재미를 보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현대자동차 쏘렌토가 2012년 6월 이후 3년여 만에 판매 1위에 올랐다. 출시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지난 7월 9942대가 판매되며 자동차 판매 순위 '역주행'에 성공하게 된 것이다.

쏘렌토가 차종별 판매 1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지난 6월 '쏘렌토 더 프라이م'을 출시하면서 성능은 대폭 개선하고 가격은 동결한 것을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쏘렌토는 올해 1~5월 월평균 5700여대 판매되는 것에 그쳤지만 '쏘렌토 더 프라이م'이 출시된 6월에는 9073대, 지난달에는 9942대가 판매되며 큰 인기를 누렸다.

'쏘렌토 더 프라이م'은 2.0 엔진 탑재 모델의 경우 외관 디자인 변경과 함께 어드밴스 에어백, 유로6 대응 엔진, 스텔오버랩 대응 구조변경 등 기존 모델 대비 고객 선호사항이 대거 탑재됐음에도 가격은 오르지 않았다.

쏘렌토의 선전에 자극을 받은 기아자동차도 지난 3일 쏘렌토의 경쟁 모델인 쏘렌토의 상품성 개선 모델 '2016 쏘렌토'를 내놓으며 '착한 가격' 추세에 맞불을 놔다. 기아차는 '2016 쏘렌토'를 선보이면서 어드밴스드 에어백과 코너링 램프 등 다양한 첨단 안전, 편의 사양을 추가하면서도 총 8개의 트림 중 두 개의 트림을 제외한 모든 트림의 가격을 동결하는 등 경제성과 상품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기아차가 지난달 15일 출시한 신형 K5도 '착한 가격'이란 대세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신형 K5는 초고장력 강판 확대 적용, 7에어백 시스템 기본화, 핸들링 및 N.V.H 성능 개선, 핫 스텝핑 라

현대 쏘렌토, 기아 쏘렌토·K5

상품성 강화, 가격인상 최소화

수입차 거센 공세도 한몫

디에이터 그릴 적용 등 기본 상품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음에도 가격 인상폭을 최소화했다.

특히 가장 많은 판매가 예상되는 2.0 가솔린 프레스티지 트림의 경우 소비자가 선호하는 휴대용 무선충전 시스템과 스마트 트렁크 등을 적용하는 등 사양을 재구성해 기존 대비 상품 경쟁력을 높이면서도 가격은 2520만원으로 기존 모델 대비 160만원이나 낮췄다. 이 덕분에 신형 K5는 지난 6월 말부터 시작된 사전계약분을 포함해 지난달 말까지 총 1만1천여대가 계약되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추세는 지난달 출시된 한국GM의 신형 경차 스파크에서도 확인된다. 한국GM은 신형 스파크의 차체 71.7% 부위에 고장력 강판을 적용하고 운전석과 동반석 에어백, 사이드 에어백, 커튼 에어백 등을 기본사양으로 넣었는데도 주력 모델(LT, LT+)의 가격을 최대 23만원 내렸다.

자동차업계가 앞다투어 '착한 가격' 정책을 채택하는 것은 수입차들의 공세가 거세짐에 따라 경쟁이 그만큼 더 심화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차를 구입할 때 경쟁 모델들을 놓고 꼼꼼히 비교하는 고객들이 점차 늘면서 가격이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경쟁 심화에 따라 자동차 회사들도 예전처럼 마냥 가격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앞으로도 차 업계의 착한 가격 정책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현대자동차 '쏘렌토 더 프라이م'



기아차 '2016 쏘렌토'



기아차 신형 K5

광주일보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010-2611-7687

이가회관

동구 금남로2가 총장동사무소 뒷길 백반, 생태탕, 대구탕, 이구찜, 낙지볶음 각종생선조림, 단체모임예약운영

대표 이복례 ☎062)224-1541

미정

동구 금남로2가(구동구청 뒤) 옛날 구미향 계절 생선회, 일식전문

대표 김봉식 ☎062)236-3177

태평양횃집

북구 면암로 139번길 45 두암동 광주병원 옆 자연산회전문, 각종모임, 연회석 원비

대표 정진풍 ☎062)263-8862

블르메플라워샵

동구 공동 67번지 (예술의거리 중앙초교담당장) 경조화환, 동·서양단, 꽃바구니, 꽃다발

대표 임미향 ☎062)653-3676

광주천가꾸기협의회

동구 수기동 명성예식장 앞 여성 취미교실, 서양화, 수채화 무료 초보자 환영

☎011-602-2883

(주)세원모터스

북구 두암동 농협삼거리 LPG충전소입구 자동차정비, 타이어, 오일교환 kb손해보험대리점

대표 김경호 ☎062)513-0211

이경숙갤러리

동구 계림동 서방사거리 이마트옆 친환경원목가구, 돌침대, 휴침대 식탁, 화장대, 좌탁, 돌소파전문매장

대표 이경숙☎062)224-2880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회암관

북구 두암동 예텐병원 옆 장영사 정문앞 소머리국밥, 횡태국밥, 수육 단체예약손님 환영

대표 김미자 ☎062)261-5912

일등모바일

동구 금남로 2가 7-4 (구동구청 1층) 핸드폰·악세사리 도매 전문점

☎010-4655-9689

서울표구점

북구 흥흥동 269-14 평화맨션 버스승강장 건너편 동양화 매매, 각종표구전문

☎010-3633-2790, 267-7979

놀부부대찌개문화전당점

동구 관산동 56-1 (번지유리상실업) 부대찌개, 철판구이

점장 최은진 ☎062)222-9290

석당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초대화랑

동구 공동 54-2 (중영로 196번길 15-16) 예술의거리 중앙초교사거리에서 카톨릭센터쪽 30M 이전 확장개업

대표 임택택 ☎010-2681-3113

토산철학원

북구 두암동 예텐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

대표 이태연 ☎010-4106-5055

똥이레

동구 대의동 10-1 비디장어, 찜닭, 봉장어, 사브사브, 돌판볶음, 소금구이, 양념구이, 계절떡국

대표 윤영희 ☎062)234-7949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고전방

동구 공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

다나베움므

동구 남동 169-4 (충장로 17입구 민속촌 옆) 호남 최고 맛춤 정장 결혼 예복전문

대표 김도경 ☎062)224-4262

광주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동·서양화 매매 및 무료감정 고급표구 제작판매

대표 박종환 ☎062)232-4784

미락식당

동구 계림동 서방사거리 금호e마트점문옆 한방건강개선, 꽃게무침, 갈치조림, 홍어조림 조기매운탕, 각종 생선구이 전문점

대표 김지수 ☎062)515-6464